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KJB  **광주은행**

simpro의 나의 오래된 주식이야
기

simpro

소개글

목차

1	나의 강통종목 광주은행	4
2	애증의 종목 동아에스텍	6
3	연평도포격사건과 주식	11



2000년경으로 기억이 된다..

광주은행 주식을 주당 550여원 정도에 샀다.

IMF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중 일부가 잇따른 기업도산으로 대출금을 회수못하여 BIS비율을 못맞추고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 였다.

그당시 김대중정권이어서 설마 광주은행의 주식이 망하랴..다시 5,000원대는 가겠지 하며 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다..

이것을 사놓고 이틀만엔가...거래정지 되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그러한 현실을 깨닫기 까지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들리는 말엔 영업은 하나..주식은 완전감자로 한푼도 못받을 것이란 말이 지배적이였다.

하늘이 노래졌다..삶의 의욕도 끊겨버렸다.

밥숟가락을 놓고 공공앓던 기억이 난다.

회사생활하면서 근근히 모아온 돈으로 이종목을 덜컥 매수해 놓고 세월이 좋아지지만 기다렸던 내자신을 학대하고 학대했다..

술,담배로 찌들던 육신은 결국 자포자기까지 이르렀다.

10배이상 벌고자 고위험 고수익에 배팅한 나의 실책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식투자니 머니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회사생활이나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정리했다.

그해 매수청구권행사로 주당 200원을 돌려 받았으니 나는 한주당 350원정도를 손해 봤다.

그래도 이 얼마나 다행인가..

투자금의 36%정도를 돌려받은것이다.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투자공부하면서 원금의 60%이상을 잃었지만

전부를 잃어서 강통되는것 보단 훨씬 좋은 조건이 된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금융 BW를 준다는 것이다..

물론 주당 5,000원에 사는 것 이지만 잘만 하면 잃은 투자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다.

환매받은 돈으로 BW를 청약했더니 삼성증권계좌로 주식이 입고되었다.

공모가는 6,800원정도였는데 몇 달 간을 공모가도 회복 못하다가 3,700원대까지 떨어졌다.

애초에 나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 처럼 난 주식을 잊고 회사 생활에 충실했다.

결국 난 우리금융지주를 2004년초에 8,500원선에 매도하고 말았다..

투자수익을 70%정도 냈지만 배고팠다...

13,000원은 가야 내 원금을 회복하니까.

당시 광주은행, 경남은행등은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2003년 4월경 상장폐지되었다.

7년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금융의 주가가 15,500원정도이니

내가 미쳤지..미쳐도 단단히 미쳤던거야..ㅎㅎ

내가 판 뒤로 주가는 주구장창 올라서 마침내 2005년 3월경 10,000원도 돌파하고 2005년 12월경 20,000원대도 돌파하고

2007년 2월경 26,500원선을 찍고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다...

난 2004년초 대세상승기 초입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처음 광주은행을 사기 위해 투입된 자금의 2배는 벌었을 것인디....오매 아까부러..

결국 주식은 장기투자만이 살길이라는것을 절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아이고 배아퍼라...

2007년 5월로 기억된다.

동아에스텍이란 종목이 다니던 회사와 관련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던 중, 지역사회 기업이고, 코스피종목이기도 하며,

그 회사의 사장이 고교동문이어서 매수하였다.

평균매수단가는 약4250원선 , 매수수량은 1만주.

그후 일이 바빠서, 또는 들여다 볼 시간도 없어서 핸드폰에 관심종목의 현재가알람만 등록해 놓고 바쁘게 돌아 다녔다.

매수한 이후로 4000원 아래로 빠진날은 없었고, 8월경 7000원선도 밟았다...

슈퍼개미라는 박성득이라는 양반이 이주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투자니 머니 하면서 매수했다고 연일 신문에서 떠들고 있었다.

나는 채재를 불렀다...이 양반이 샀으니 만원은 넘어가겠지....

그것이 불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별로 걸리지도 않은 것 같았다.

7000원선 잠깐 맛을 보고 내리 하락하여 11월엔 3500원선까지 주저 앉았다..

그해에 3700원선에서 마감이 되고, 배당금으로 100원을 보상받았다.

2008년들어 연초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월달에 또 다시 7000원대를 돌파하여 신고가를 갱신한다.

나는 또 다시 채재를 불렀다.. 지금까지 주식투자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 주가가 더 날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패착이었다..

슈퍼개미가 안들어 와 있었다면 상황대로 갔을것인데..

문제는 이종목에 슈퍼개미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일에 바쁘다 보니 신문이나 밤에 팩스넷에 들어가서 밖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그가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고점을 찍고 내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달도 안된것 같다..

난, 그때도 낙관하고 있었다.

슈퍼개미가 빠져나간 다음에 주가는 다시 회복하겠지하고..

그이후로 세계경제가 암울해지고 미국발 주택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투자은행들이 문닫는 금융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다..

손절매~~ 손절매~~ 속으로 손절매를 부르짖었지만...

장기투자자의 습성상 다시 회복되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만 들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후 주가는 2008년 5월경 4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고 2008년 6월경 3000원대도 깨고 내려가

결국 2008년 10월경 2000원대도 깨고 내려가

2008년11월경엔 1000원대도 위협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9개월에 걸쳐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란히 기록하는 내 주식투자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만것이다.

그해에 주가는 최고가 7180원 최저가 1085원을 기록했다..

나의 매수가인 4250원에 비하면 4분의1토막이 난것이다..

아무리 동아에스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종목에 걸쳐 일어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라 하더라도

투자금액이 4분의1토막이 날때까지 난 무엇을 했을까?

밤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삶의 희망이 송두리채 빼앗겨버린 인생최대의 위기였다.

물론 팔지는 않았기에 평가손 이었지만 주식계좌를 들여다 볼때마다 피눈물이 흘러내려 책상에 떨어지곤 했다..

동아에스텍 1만주.. 순식간에 평가손이 무려 삼천만이 넘었다..

위기는 곧 기회다..

2008년 12월 1400원대에서 과감히 몰타기 매수를 시도했다.

2004년 코스피지수 600포인트대 부터 불입한 펀드를 2006년초 1400포인트때 환매하여

약80%정도의 펀드수익율을 기록한 자금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1300포인트대에서 다시 펀드에 가입하여 2000포인트때 판 자금을 다시 꺼내어

만주를 더 매수했다.. 도합 2만주..평균매수가가 2900원선이 되었다.

자....이제 기다려야 한다..한 2년은 기다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자위하면서 코스피지수가 다시 1000선 아래로 떨어질때부터 매달 펀드를 넣기 시작했다.

이제 주식은 잊어버리자..

내 할일이나 열심히 하고 편드나 열심히 붓다 보면 좋은날이 올거야..

2009년초에 배당금으로 50원을 받았다.

회사측에서는 사상 최악의 실적에 최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들에게 그래도 50원은 배당해 준것이다.

2009년 들어 주가는 결국 내 평균매수가를 돌파하여 3000원대도 구경시켜준다..

이대로는 안된다..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다...다시 4000원선은 봐야한다..하며 오기로 버텼다..

그렇지만 주가는 탄력을 잃어 계속 3000원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회사는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주가는 한번도 4000원선은 구경 못시켜주고

결국 그해 2700원선에서 마감하였다...

난 결국 또 평가손을 안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다음해 실적에 걸맞게 135원의 배당금이 나왔다..

결국 난 3년에 걸쳐 배당금만 285원을 받은것이다..산술적으로는 대략 손해는 안본것이다..

기회비용과 제세금을 제외하면

횃수로 3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종목으로 한번도 희열을 못 느꼈지만 연초에 고점돌파가 어려우면 버리기로 했다.

3400원을 찍고 떨어질때 던지기 시작했다...

아무생각이 안들었다.. 당장 팔아도 이익이니 ..평균매도가가 3100원 정도이니 주당 200원정도의 이익을 본셈이다..

3년을 들고 있으면서 세금공제전에 400만원정도 번것이다...

기가 막혔지만 어쩔것인가..이미 매도쳐 버렸는데..

그후 이종목은 3000원선을 잠시 회복하더니 내리막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다..

난 이종목을 작년 배당락하기 하루전에 매수했다..

애증이 교차하는 종목이어서...버리기가 아까워서...배당금은 이번엔 또 얼마를 줄까? 하면서...

1만주정도 밖에 안샀지만 지금도 이 종목은 내 매수가 근처에서 놀고 있다...

하루올리고 하루 내리고 장중에도 올랐다 내렸다....

몇몇창구로 서로 돌려가면서 거래량 관리를 하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난 이종목을 또다시 장기로 가져간다..

어제 현대건설 과 하나금융지주를 처분하고 여유자금도 들고 있지만 더이상 추매는 하고 싶지는 않다...

들인 정성에 비해 과실을 수확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2000원 아래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주기로 한다..

자식같은 종목, 동아에스텍...



동아에스텍 주봉 (2007년 매수시점부터 2011년1월까지)



동아에스텍 일봉 (2010년 처분후 12월달에 재매수 할때까지의 일봉)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북한의 개머리에서 포탄이 날아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오후2시30분경에 첫 포탄이 떨어졌다는데...장중에는 엠바고가 걸렸나...조용하다가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요동을 친다.

즉시 실탄장전하고 사냥에 나섰다..

거의 전종목이 시간외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할 모양새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북에서 핵폭탄 실험할때는 정규시장중이었지만...오늘은 시간외에서 폭포수처럼 내리꽃을 기세다..

이럴땐 코스피 우량주를 사야한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대건설과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하한가에 걸어놓은것이 차례로 체결된다..

현대건설은 그날 종가가 60,100원, 하나금융지주는 종가가 37,000원이었다..

그 두종목을 모두 시간외 하한가 근처에서 주워담았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거 사놓고 오후내내 그 다음날 장이 열릴때 까지 머리속은 온통 새하얗게 연평도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들었다.. ..

아닌게 아니라 YTN등 모든 정규방송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전쟁수준으로 방송중이었다..

불타오르는 연평도...

실시간으로 전해 오는 연평도의 참혹한 모습에 두려움이 앞서왔다..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니야?

우리쪽의 피해가 전해지고 북한의 피해규모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온 뉴스에는 수많은 북한군이 사망하고 도망치고 했다하니

그들 역시 많은 피해를 봤을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우리의 해병의 대응력이었다.

그 와중에도 80여발을 대응사격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옆에서 동료가 부상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면 그 전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해병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북을 향해 자주포를 돌리고
대응사격한것은 투철한 애국심과 전우애 , 그리고 평소 다양한 훈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일것이다.

생각해봐라...내 옆에 포탄이 떨어지면 숨기 바쁘지...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다시 증권사이트를 보니 불현듯 스치는 불길한 느낌은 아무래도 지울 수 가 없었다..

아...이거 잘못산것은 아닌가...후회가 빗발치듯 몰려왔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말았다..

평소 현대건설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사이의 m&a 이슈로...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이슈로..

잘되면 주가가 레벨업되는것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에 이 두종목으로 선별해서 매수한것인데....

설마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하며 뉴스에 귀기울여본다..

다음날 11월24일 아닌게 아니라 현대건설 아침시가가 60,100원에서 1,700원빠진 58,400원에 시작한다..하나
금융은 오히려 어제 종가 37,000보다 더 높은 37,600원에 장을 시작한다..

연평도사건을 시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인것이다...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의
도발에 주가지수는 내적면역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북한의 만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해5도의 전력증강은 필수적이고
최첨단 무기가 재배치된 것은 정말 잘 한 일인것 같다.

그이후로 연평도 거주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의 정들었던 고향산천은 복구가 진행중이란다.

이젠 정말 돌아가기가 싫은 고향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내조국의 땅에 두번 다시 북한의 포가 떨어진다면

나 역시 북한을 향해 분노의 외침을 쏘아 올릴 것이다.

오늘은 이 2종목의 보유에 대한 비하인드스토리를 적었다..

다음엔 기존 보유종목인 애증의 동아에스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현재 보유종목은 5종목이며 주식대현금 비율은 지금은 0 이다..평상시는 5대5정도는 유지했었는데 현대건
설과 하나금융을 추가하면서 그 원칙이 깨져버렸다.



현대건설의 매수시기와 현재가



하나금융지주의매수시기와 현재가

simpro의 나의 오래된 주식이야기

블로그

simpro(운명이다)의 반백년 이야기

<http://blog.daum.net/huhasim>

저자

simpro

발행일

2011.03.21 11:51:52

 블로그